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등게스와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 손주희
- 08 **살라맛, 민다나오**
똑같은 비전을 함께 하고 있다 | 띠에자
- 11 **쭌리읍쑤어, 캄보디아**
문제 생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 박주선
- 14 **아빠까달, 인도네시아**
자기 집 자기 손으로 복구해요 | 임희성

국내소식

- 16 **특집 JTS 사랑의 저금통**
JTS 사랑의 저금통 이야기
- 18 **JTS가 만난 사람**
저금통 분양은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 편집부
- 22 **사람이 있는 풍경**
영어 전래동화책을 만든 충남 외고를 찾다 | 윤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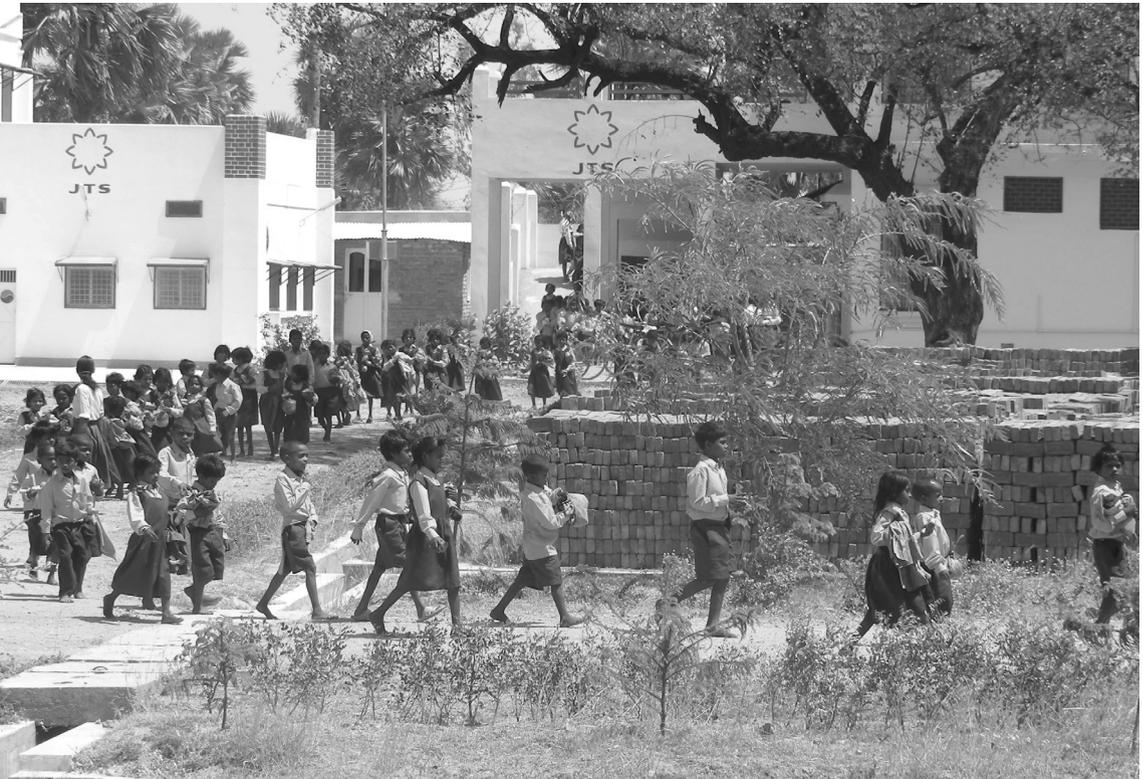
나눔회원소식

- 24 **활동터 소식**
국내 · 인도 · 캄보디아 · 스리랑카 · 아이티
- 30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 명단확인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등게스와리 유치원생 시험일

아이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 발가락 끝이 까지고, 발꿈치는 나이 많은 옆집 아저씨만큼 이미 딱딱하게 굳어있다. 새까만 피부는 더운 여름, 80%를 넘는 어마어마한 습기로 빨간 땀띠가 나있고 머리는 꼭 까치가 집짓다 간 자리처럼 삐죽삐죽 빗질도 되지 않는 도깨비 머리다. 여름동안 물 사정이 어려워 마을 아이들은 충분히 씻지 못한다. 곁에 가면 쿼퀴한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자그마한 얼굴에는 누런 콧물이 반, 눈가에는 눈꼽이 반이다. 그래도, 늘 웃음 짓은 아이의 눈빛은 달빛, 별빛마냥 맑고 초롱초롱하다.



여기저기 앉아서 그 작은 손으로 연필을 잡고 눈을 굴리며 스스로 문제를 풀기위해 애쓰기도 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동계스와리 유치원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지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조그마하고 올망졸망한 녀석들은 현재 인도 동계스와리 내 14개 마을 유치원을 중심으로 1,422명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간 무려 3개월을 거쳐 1,400명 이상이 입학한 것입니다. 5월 이후 4~50도를 넘나드는 후끈한 날씨 덕에 여름방학을 하고 7월부터 새 학기 수업에 들어간 것이 벌써 30일,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실 입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3개월 동안에도 수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방학 이후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은 과연 얼마나 공부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정부에서 지정한 과목들을 유치원에서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 또 그것 뿐만은 아닙니다.

같은 3월, 유치원을 졸업하고 수자타아카데미에 진학한 1학년들의 학업 능력이 매년 현저히 떨어져 기초학습을 다시 반복하여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이 너무도 가난해서 수자타아카데미에 진학하지 못하는 유치원생이 있다면 기초를 모르는 채로 학업을 그만두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실제 유치원만 거쳐도 힌디를 쓰고 읽으며, 셈을 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 능력을 위한 노력과 집중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3장의 시험지를 위해

'8월 마지막 주 목·금요일. 장소는 수자타아카데미, 시험시간은 오전 9시' 유치원 교사(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들과 몇 주 전부터 약속해둔 시험일이 당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각 유치원에서 진행했다면 시험지만 준비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종종 교사가 알려주거나 컨닝 또는 채점시 부정 등의 문제 때문에 좀처럼 아이들의 학습이해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수자

타아카데미까지 아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당일 아침, 아이들 소리가 숙소 안까지 들려와 밖으로 나와 보니 아이들은 약속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학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마음에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 저 멀리 아마르푸르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아마르푸르면 여기서 어른 걸음으로도 30분이 걸리는 거인데.. 게다가 멀리서 걸어온 아이들 중 신발을 신지 않고 온 아이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그 긴 거리를 부지런히 맨발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단지 힌디·영어·수학 이 3장의 시험지를 위해 말입니다.

8시가 조금 넘자 약속장소로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대로 앞 친구 어깨에 손을 올

리고 길게 한 줄로 걸어오는 모습이 꼭 병아리 떼처럼 귀여워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각 유치원 교사의 안내 아래 정해진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시끄럽고 잘 웃던 아이들이 오늘은 또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앉아서 그 작은 손으로 연필을 잡고 눈을 굴리며 스스로 문제를 풀기위해 애쓰기도 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아이들 중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숫자 123도 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같은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등교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지만, 올해엔 꼭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시험지는 예상대로 0점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서 산을 넘고 수자타로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유아반을 제외한 상급반 총 552명 아이들이 모든 시험을 치른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시험 문제는 영어 알파벳 A-Z쓰기, 힌디 알파벳 쓰기, 숫자 1-100까지 쓰기로 총 A4용지 3장이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으니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플비플 이름도 적지 못하고 그림처럼 힌디를 적고만 시험지, 1-100까지 모두 1부터 10까지만 적어놓은 시험지, 아무것도 적지 않은 시험지. 아이들이 낸 시험지에는 예상했던대로 0점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3장의 간단한 시험을 치기 위해 참으로 아이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서 산을 넘고 수자타아카데미로 와서 시험을 치르고, 다시 긴 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야하니. 이렇게

쉬운 시험이 여기 등계스와리에서는 너무도 어렵게 치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 저와 교사들은 서로 아이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수업이 현재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참 좋았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모두 자기의 이름 하나 적지 못하고 있지만, 매달 아이들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이 프로그램을 좀더 세밀히 정착시켜 올 겨울엔 꼭 이름도 쓰고 숫자 100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도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또다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를 겁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에겐 가장 쉬운 시험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

글 손주희 | 인도JTS



똑같은 비전을 함께 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불꽃



지난 5년간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산속을 걷거나 아주 외진 마을을 찾고, 원주민을 만나고, 점심으로 고구마나 카사바(마의 일종)로 때우고 아니면 아예 굶고, 역수로 퍼붓는 비속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7킬로 이상을 걸었다.

그 기억들은 어떠한 말로도 묘사할 수 없다. 또 지역 답사하는 동안 많은 벌레들에게 물리거나 해서 매번 갔다 오고 나서 호되게 앓는 것 등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보물과도 같은 기억들이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번의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얼마 전에 열린 12차 국제평화캠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캠프에 참가하는 것은 참 좋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참가한 모든 캠프는 그 자체로 유일하다. 참가자(한국사람 필리핀 사람 모두)들이 매번 바뀌고 매번 새로운 장소에서 열리고, 매번 다른 프로그램의 일감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내가 캠프 참가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다. 낯선 마을에 찾아가 보내는 2주간이 휴가같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교류하고 그들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마을주민을 위해 일함으로써 민다나오의 평화에 기여하는 기회를

캠핑에 참가하는 것은 참 좋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가 쉽지만은 않다. 많은 인내와 결심이 있어야만 계속할 수 있다. 평화캠핑은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친다. 순간에 깨어있게 하고, 매번 일을 사랑하고 활동의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캠핑은 내게 아주 특별했다. 내 삶에 대해 참가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처음 경험은 아니었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됐다. 각자 자기인생의 답을 찾고있는 젊은이들 앞에서 내가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생각하니

긴장되었다. 내 인생경험은 자랑할 만한 특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꿈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아온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하지만 그날 밤의 나누기는 내 자신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줬다.

한국참가자 리더에게서 참가자들의 반응을 전해듣게 되었는데, 내가 감동한 만큼 나도 그들 삶에 몽클함을 주었음을 알게되어 기분 좋았다. 개인의 인생경험의 나눔은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간접경험으로 새로운 방법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몇몇 한국 참가자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기분 좋았다.

또한 우리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함도 값진 경험이었다.

우리가 정말 발전을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필리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다른 이들의 도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정말 발전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시작해야 한다.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분명해져야 다른 이들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룻밤에 되는 일이 아닌 느리고도 끈질긴 과정이다. 도중에 장애를 만날 것이고, 그것은 우리 목표에 대해, 또 우리 행동이 가치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케하는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성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며,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해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해야하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캠프에서 보낸 기억들을 귀하게 여겨 간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큰 의미가 있다. 그 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끼리 장작을 깨고, 요리하고 땅 파고 흙 나르고 담장 만들기 등 아주 어려운 일들

을 했지만 그것은 인생에 도전해볼 만한 것이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인생은 따분해질 것이다. 내가 한국 친구들이나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다. 하나하나 전부 기억할 만한 가치있는 경험들이었다.

다시 말해 그 경험들이 한 번 타오른 자원봉사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었다. 장작처럼 내 인생에 그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그것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들 각자의 가슴 속에는 자원봉사의 정신이 항상 함께할 것이다. 지금의 도전은 '이 불꽃을 어떻게 계속 타오르게 할 것인가!'이다. 오로지 우리 자신들만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이 내게 오도록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마음을 계속 열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고, 배우면서, 실천한다. ^^ ✨

글 띠에자(Thieza C. Verdizo) | 민다나오 JTS

띠에자님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JTS 민다나오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생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돕는이와 안정적인 학교공사

지금 장마철이다. 일반적으로 동남아 우기는 스킨 현상(오후에 한 시간 정도 소나기가 내리는)인데 반해 라타나끼리는 한국장마와 비슷하다. 며칠씩 흐리고 낮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는 주룩주룩 내리고 아침에 잠시 해가 반짝하다가 다시 흐린 날이 며칠씩 계속되다가 다시 맑는다.

그래서 요즘은 해 보기가 어렵다. 그래도 지난 달까지 가뭄으로 학교 공사장에도 물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농사에도 물이 부족하여 걱정되었는데 그 걱정은 한시름 놓여졌다.

10월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하니 확실히 산악지역인 이곳은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과는 날씨가 많이 다르다. 특히 이곳 재래 시장에 가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이곳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나물들이 많다. 고사리, 달래, 비듬, 죽순 등등. 소수민족 여자들이 전날 뜯은 나물들을 바구니에 지고 몇 시간씩 걸어서 아침 시장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쌀과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고는 다시 바구니를 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채소와 나물들은 아주 싱싱하고 저렴한 무공해 식품이다.

공사 시작한지 8개월. 이곳의 학교공사는 안정적이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학교공사 참여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발한 툰 마을 학교 공사 현장



콘 사론 (Korn Saram)

이해부족으로 주민참여가 낮았다.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꾸준히 마을 이장님을 만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건축에 참여한다. 그 중에서도 툰 마을은 주민참여가 아주 체계적이고 잘되어 향후 제이티에스가 라타나끼리에서 활동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정도다.

학교공사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소수민족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툰 마을에서 10명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어 매일 한 그룹씩 돌아가면서 공사에 참여하고, 그룹별 참여인원도 8명에서 10명까지 정확하게 마을에서 관리했다. 이에 함께 일하는 기술자들도 아주 만족했다. 그래서 툰 마을의 학교 건축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외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주민참여로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다른 마을에서도 툰 마을의 조직적인 주민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고는 분위기가 바뀌어 매일 그룹별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학교공사에 잘 참여하기

까지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이곳 낮은 지역에서 4개 마을에 학교를 짓는데 이분들의 도

움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고마운 분들 몇 분을 소개한다.

제이티에스는 라타나끼리 주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를 짓고 있다. 처음 사전답사 때부터 협력담당자가 정해졌는데, 그 담당자는 이제는 거의 제이티에스 스텝 같다. 제이티에스 사업 원칙을 잘 이해하고 주민들



주민들이 그룹을 만들고, 그룹별로 정해진 날짜에 공사에 참여하면서
공사속도는 조금 느리나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멘 나린 (Men Narin)



이양 부띠 (Eang vuthy)

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름은 콘 짜론(Korn Sararn)으로 나이는 31살. 교육청공무원이다. 아직 미혼이며 라타나끼리 교육청에서 NGO단체와 교육청간의 지원업무를 맡아서 국제 NGO단체들의 라타나끼리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기에 신뢰가 가는 분이다. 특히 제이티에스가 전혀 협력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언제나 본인 일처럼 마음으로 돕고 있다. 가끔 내가 놓치는 일도 먼저 알아서 챙겨주고 점검해주는 든든한 지원자다.

KFC의 할아버지같은 이미지에 항상 넉넉하게 웃고 있는 멘 나린(Men Narin), 나이는 57세. Health unlimited NGO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시고 현재는 매니저를 맡고 있다. 결혼하여 아들 하나와 딸 셋을 두고 있다. NGO 근무 외에 자갈, 모래, 목재업을 함께 하고 있어서 이분의 도움으로 자갈, 목재 등의 자재를 해결하고 있다. 처음 이곳에서 학교공사를 시작할 때 이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많은 고생과 시행착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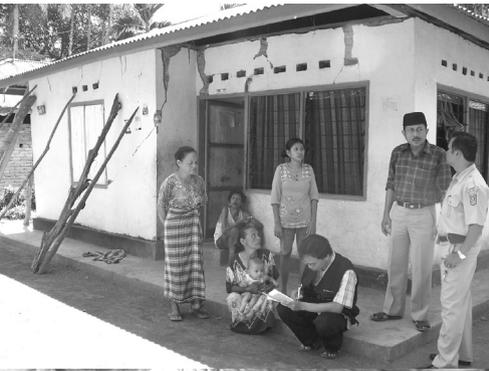
로 힘들었을 것이다. 본인의 쉬는 시간을 할애해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특히 댁에서 해주는 저녁식사는 정말 맛있다.

비썩 마른 인상이 깐깐할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은 오히려 아버지처럼 챙겨주시면서 일하고 있는 라타나끼리의 유일한 제이티에스 스텝 이양 부띠(Eang vuthy). 나이는 57세로 결혼하여 아들 딸 한 명씩 두셨다. 과일농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끔 두리안, 아보카드 등 과일을 가지고 출근하신다. 매일 업무를 기록하시고 마을에 구입하여 전달한 물품을 기록하여 업무를 꼼꼼하게 진행하신다. 이 분이 계셔서 이곳 실정에 맞게 일을 진행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학교를 건축하면서 마을에서나 자재구입시에 문제가 생길 때면 옆에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함께 고민해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신나게 행복하게 학교를 짓고 있다. ✨

글 박주선 | 캄보디아 JTS

자기 집 자기 손으로 복구해요



여기는 인도네시아 웨스트수마트라에 있는 루북 바송이라는 지역이고 지금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온 나라가 먹고 마시는 걸 자제하면서 심신을 정결히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한여름이라 매우 덥겠지만 여기 또한 매일 3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비가 오고 주위에 숲들이 많아 더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군요.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이곳 웨스트수마트라 지역은 특히 무슬림 강세지역이라 저에게는 먹고 자고 입는 것 모두가 낯설지만, 호기심 많은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웨스트수마트라 루북바송 지역에서 작년엔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들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건축자재를 대주고 그들 스스로 자기의 집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구 수는 50가구이며 저는 여기에서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지원을 맡으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제 파트너인 현지인 에코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죠.

박지나 대표님이 사전에 준비를 잘해주셔서 활동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인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특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의 느긋함을 부리는 것은 확실한 일처리에 익숙한 한국 사람인 저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죠. 전체 50가구이기 때문에 일의 공정은 조금씩 다르고,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공정률보다 못미치고 있지만 파트너와 최대한 손발을 맞춰 제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다녀보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아홉 명 열 명이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하고 비좁은 집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집 전체가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다른 거처가 없어서 계속 살고 있는 가구들도 많구요. 더군다나 애들까지 많은 집이면 더욱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런 집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한 달이지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 곳 루북바송 지역은 인구 7만의 작지 않은 지역인데도 아직까지 공동체정신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수많은 지역 책임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서로가 서로의 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죠. 일의 효율을 기준으로 삼는 저에게는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죠. 후딱 해치우고 말 수 있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

글 임희성 | 인도네시아JTS

JTS 사랑의 저금통 이야기

JTS는 사랑의 저금통을 해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분양하고 있다. 저금통 분양은 JTS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학교에 건의해서 분양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인데 이번 해부터는 학교측에서 공식적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JTS에 요청해오는 상황이다. 저금통을 분양하여 학생들에게 나눔과 행복을 일깨워주시고 아시아 어린이들에게는 희망을 주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함안 산인초등학교는 전교생 57명의 작은 학교이다. 지난 봄에 한달 반동안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를 돕기 위한 JTS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했다. 전교생 모두가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모은 288,130원을 JTS에 후원하였다. 저금통 모금에 동참해주신 함안 산인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JTS에 또다른 희망을 가져다 준 함안산인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랑의 저금통 모이기 소감을 들어보자.



돼지 저금통 모금을 하며

5학년 송시은

우리 학교는 돌봄 학교다. 국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늘 학교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늘 받기만 해서 미안했는데 선생님께서 돼지저금통을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내가 모은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기분이 좋았다. 마침 사회시간에 자연재해에 대해 배우면서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었다. 지진과 해일로 인해 집과 학교 직장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그와 같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다니..... 내가 가진 용돈을 쪼개어 돼지저금통에 넣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

예전에는 부자가 되어야지만, 어른이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지저금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보니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전을 왜 모았을까?

4학년 이슬기

우리는 얼마 전부터 작은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다. 당연히 그 동전을 그냥 모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전을 모았다. 그 동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 큰돈일 줄 알고 열심히 모았다. 우리의 용돈을 내가 그냥 맛있는 것 사먹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돕는 곳에 쓰는 게 더 기분도 좋고 사람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부한 적은 돈들로 그런 가난한 나라가 굶지 않고 밥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런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 내가 이렇게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학교도 잘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뭐든지 아껴 써야겠다.

'단비' 프로그램을 보고

4학년 김가연

나는 숙제를 다하고 '단비' 하는 날이면 재빨리 달려가서 단비를 본다. 지난번에 단비에서 7살짜리 아이가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고, 어떤 오빠는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간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봤다.

그것을 보고 나는 '이제부터는 엄마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지 않아야 겠다' 라고 다짐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돼지저금통에 돈을 모아서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 청소년에게 도움을 준다는 행사가 열렸다. 어렵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돈을 아껴 쓰고 있다.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어렵게 사는 나라에 축복을 빕니다.

돼지저금통 동전은 어떻게 모았나요?

3학년 박예원

나는 지난번부터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못사는 나라에 돈을 기부하면 내 돈이 없어지지만 돈을 기부하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100원짜리와 10원짜리를 넣었다. 많이는 못 채웠지만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다.

내 동생 소원이는 "왜 내 돈을 넣어야 돼."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나는 소원이가 이상했다. 나는 음식을 세끼 다 먹는데 아이티나 북한은 한 끼 밖에 못 먹어서 불쌍하다. 그래서 아이티하고 북한한테 돈을 많이 기부하고 싶다.

다음 기회에 꼭 채워서 돼지 저금통을 내고 싶다. 내 돈이 어느 나라한테 갈지 궁금하다. 빨리 북한과 통일이 돼서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티에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가족을 잃으면 안되겠다. ✨

저금통 분양은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인터뷰 고양 중산중학교 교사 윤순애

정리 편집부

JTS는 해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사랑의 저금통을 분양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작년과 올해 저금통을 분양하여 학생들에게 나눔의 실천과 봉사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고양 중산중학교 윤순애 선생님을 만났다. 찾아간 저에게 윤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저금통의 분양과 수거, 계수와 입금하는 것 모두를 직접 보여주셨는데,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



JTS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불교를 안지는 오래되었어요. ‘금강경 독송회’에서 금강경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지인 한 분이 법륜스님 법문을 추천했어요. 인터넷으로 법륜스님 금강경 강의, 즉문즉설을 듣고 카페를 통해 정토회와 교사정토회를 알게 되었죠. 작년 5월부터는 교사정토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법문에서 “그동안 애썼으니 이제 쉬세요.” 하고 위로해주라는 말씀을 듣고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고, 기복적이었구나. 작년에 큰애가 고3이었을 때 난 참 나쁜 엄마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한 여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는데...’ 하면서 가족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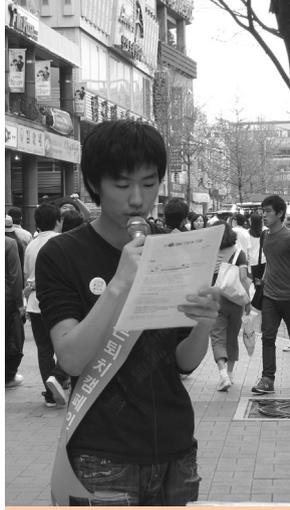
그렇게 정토회를 알면서 정토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죠. 우리 아이들에게 JTS의 취지를 알리면 참 좋겠다 싶었고, 특히 인도나 필리핀 등 아시아 어린이들의 상황과 JTS 활동을 알리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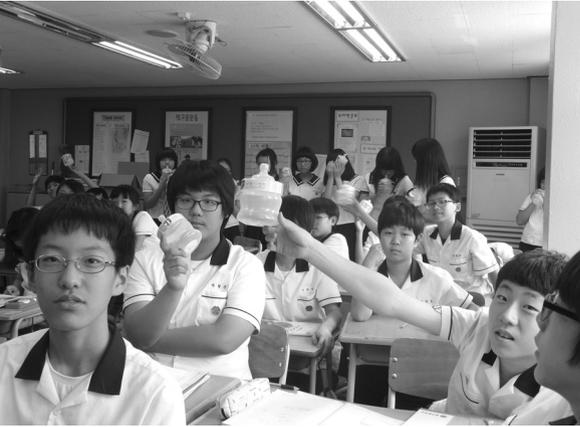
작년에는 22분의 선생님들도 저금통 분양에 동참하셨어요. 그 분들은 어디에 쓰이는지는 몰라도 그냥 도와주자는 가벼운 마음과, 저에 대한 믿음으로 동참하신 것 같아요. 그 점 참 고마웠어요. 그간 이런 불교적인 실천을 바라왔던 마음이다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

이 맞물리면서 JTS활동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저금통 분양시 어려웠거나 보람 있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그 전에 월드비전에서 저금통 분양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한번 해보자고 교장선생님께 제안했어요. 저는 환경봉사부 담당이고, 이 일은 학생복지부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교사정토회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몇 반 모아서 분양했는데, 학교 전체로 분양하는 것은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금통 1,600개가 공장에서 바로 왔는데 스티커가 늦게 와서 저금통을 나눠주는 것부터가 순조롭지 않았어요. 원래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같은 환경부 선생님들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미안했어요. 그래도 가볍게 저금통 각 반 별로 나누는 것을 도와주셨고, 스티커는 각 반 담임선생님에게 붙여달라고 요청했죠. 특히 꼼꼼한 선생님들은 네임펜으로 저금통에 이름을 쓰게 하더라고요. 스티커 붙여도 잘 떨어지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거하고 동전을 계수해서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더욱 문제였어요. 각반에 저금통 계수 학생을 3명씩 자원 받아서 누런 봉투에 동전을 구분해서 가져오게 했지요. 다른 종이는 찢어지더라고요. 또 새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재활용 봉투를 학교 구석 구석에서 구해서는 학년/반을 적어주었어요. 그 동전들을 큰 박스에 담아





이동할 때는 얼마나 무거웠던지... 또 문제는 한꺼번에 안 들어오고 하루에 두세 반씩 들어오면 그걸 들고 매일 은행에 가야했어요. 수업 끝나고 은행이면 동전이라고 꺼려했어요. 그래서 청원경찰에게 사정을 했지요.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한푼 두푼 모은 동전이니 도와달라고.” 그래서 동전계수기에 넣고 계수하면 세 반 것을 모으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침에 동전을 은행에 갖다 주고, 오후에 가서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어느 날은 가다가 동전봉투가 터져서 길바닥에 동전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처음엔 분별심이 확 올라오다가, 동전을 하나씩 주면서, 굶어죽어가는 애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이 동전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았을 것을 생각하니, 움찔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소중한 돈이구나 생각했어요. 6월 한창 더울 때인데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죠... (하하) 또 입금은행이 달라서 수수료가 4,000원이 들더라고요. 그 수수료가 아까워서 제 통장에 넣어서 다시 입금하는 식으로 했어요.

저금통 분양을 하면서 “이게 바로 수행이다. 수행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도 했어요.

주위 다른 학교 선생님들에게 ‘저금통 분양하랴’고 권유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일단 전화해서 “JTS 후원하려면 연락 주세요”라는 말을 가볍게 건넸어요.

올해는 조금 수월했어요. 2월에 공문 보내고 5월에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3월부터 준비했어요. JTS 홍보영상도 틀어주고, 한지민씨 영상도 보여주면서 준비했어요. 저금통 나누는 것은 학부모들이 도와주고, 입금하는 것은 일산지역 JTS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했어요. 새로운 모양의 저금통을 분양했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노란봉투에 동전을 담아서 불편했는데, 올해는 동전을 털어낸 저금통 젓꼭지를 잘라서 그 통에 10원, 100원짜리 동전을 분류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저금통을 재활용한 것이예요. 그렇게 은행에 가져가니 훨씬 수월

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의 위대한 합작품이라 볼 수 있죠(^)

한 학급이 줄었는데도 지난 해보다 저금통 분양 금액이 늘어났어요. 일년내내 작년에 썼던 전달판을 붙여놓고 JTS에 대한 홍보도 있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금통 분양 후 학생들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빈그릇 운동을 해요. 그릇에 담긴 음식을 깨끗이 다 먹는다는 그것이 단순한 환경오염을 더는 차원이 아니라, 버리는 음식만큼 돈이 절약되어 굶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를 알렸죠. 그리고 '남기면 미안하다'는 빈그릇 수기 모집을 했어요. 수기에는 뿌듯해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몇 편은 아주 감동적이어서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느 반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입맛이 없어 안 먹고 있으니 "같이 먹어 드릴까요"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먹은 적도 있었대요. 그 반은 지금까지도 잔반제로 실천하고 있어요.

이렇게 빈그릇 운동과 맞물려서, 저금통 분양도 하면서 아이들이 반찬을 남기면 자기 스스로 미안해하고 하면서 학교 전체가 잔반 제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편이에요.

거리모금과 저금통분양은 아주 주요한 JTS 활동입니다. 분양 확대방안이 있으신다면?

JTS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 홍보물도 부족해요. 우선 제대로 된 홍보물 제작이 중요하고요. 또 지역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5월에 학부모, 학생 60명이 일산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캠페인을 했었는데, 사전교육을 통해 행사의 취지와 JTS에 대해 알고 거리에 나가 캠페인을 하니 참 좋았어요. 학부모님들은 자주하는 요청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JTS자원봉사자들과 학생, 학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 교사 1명을 요청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워크샵을 열 예정이에요. 이렇게 실천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도와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가야겠지요. 정토회 교사들의 주축으로 저금통 분양의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요.

저금통 분양 하시려는 선생님이 계시면 어떤 조언을 드릴지?

JTS가 다른 구호단체와 차별되는 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모금한 돈의 100%가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쓰여진다는 점, 분양의 모든 과정이 자원봉사로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동전을 직접 계수해서 좋은 점은 아이들이 얼마를 모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분양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좋은 사회교육이 된다는 거죠. JTS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어린이들을 먼저 도와야하는지를 알면, 저금통을 분양하는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이 일에 대한 보람이나 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요?

저금통 분양은 아이들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어려운 이를 돕고 싶어도 행동으로 못 옮겼던 아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지요. 가끔 학교에서 일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나 이도 먹고 예전에는 명예퇴직과 승진에 대한 고민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월급만 받아먹는 나이든 교사' 라는 말이 싫었는데 이 일 하면서 활기와 보람을 느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 감사하고 제가 담당했었어요. 대가없이 뭔가를 하면 자유롭고 흐뭇하잖아요? 🌸

영어 전래동화책을 만든 충남 외고를 찾다

글 윤미숙 | JTS(천안)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는 번역동아리 The Translators 가 있다.

영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동아리이다. 이 친구들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책이 부족한 나라에는 책도 보내지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JTS에 우리의 전래동화를 영어로 번역한 정성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책 1박스를 기증했다.

김봉겸을 지도교사로 김선오, 이선영, 윤여준, 배양진, 정이현, 구효진, 조재경 등은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 우리 정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3편을 선정하고 분담하여 영어로 번역했다. 아름다운 우리 정서에 맞는 영어표현을 찾기 위해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넣으려고 미술부 학생들의 협조를 얻기도 하였다.

또 최종교정은 원어민의 도움을 받았다. 학업에 바쁜 고3으로서, 영어로 번역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번역을 마치니 출판해보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번역에서 책 출판으로까지 확대하여 편집도 하고 그래픽작업도 보태 책의 모양을 갖추었다. 샘플북을 만들고 학교로고 삽입 등의 작업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인쇄된 책자를 손에 드는 건 아주 벅차고 뿌듯한 일이다. 처음 하는 일임에도 전문가 못지않은 예쁜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 책이 널리 읽히고 해외에까지 전달되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에 이들은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책은 크게 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호랑이 형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리고 ‘은혜 깊은 두꺼비’. ‘호랑이 형님’은 재치를 발휘해 모숨을 건진 나무꾼과 인간보다도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로 재치와 해학이 넘치는, 우리의 문화를 잘 드러내는 전래 동화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하늘의 해와 달이 생성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은혜 깊은 두꺼비’는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갚을 줄 알며, 사람은 더욱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아리 The Translators의 멤버 중 몇몇에게 소감을 물어 보면서 참 신선함을 느꼈다.



구효진: “이 일 해보자는 제안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더우기 고3이라는 환경이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었지만, 우리 문화 알리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배양진: “시험만을 위해 공부했던 영어가 우리문화를 알리는 소통의 방법으로 쓸 수 있어 기뻐요”

김선오: “전래동화에서 한국문학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효’라는 우리 전통의 고유개념을 외국 어린이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이선영: “어려서는 주로 외국동화만 읽었는데, 이제 외국 어린이에게 우리 전래동화를 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기특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조용하고 쾌적한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해있는 충남외고는 어떤 학교일까? 총 17개 학급으로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가 있으며 내년에는 베트남어과까지 신설하게 되는 외국어 고등학교이다. 547명의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학업에 열중하며 소중한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과정, 열정이 있는 최고의 선생님들, 최적의 교육환경, “Spread your wings to the world”라는 비전, 이 모두를 두루 갖춘 충남외고의 저력이 한국의 미래를 앞당기며 꿈을 현실로 바꾸어가고 있다. ✨

인도소식

I. 수자타 아카데미

① 학생들 독립기념일 행사하다

인도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8월 15일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과 스텝, 경찰 모두 9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행사 시작 전에는 4,5학년 학생들이 독립을 기념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마을을 행진하였다. 국기 게양과 연설 이후에는 아이들이 노래와 춤으로 문화공연을 하였다. 그리고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식으로 분디아와 과일을 제공하였다.



② 7종목의 체육대회

8월 12일에는 전교생 대상으로 체육대회가 열렸다. 전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100미터 달리기, 멀리뛰기, 의자 돌리기, 줄넘기, 축구, 크리켓, 팔찌 입으로 전달하기 등의 경기를 치루었다. 아이들이 맘껏 뛰고 놀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③ 라즈기르에서 교사합숙프로그램

7월 24일 ~ 25일 1박 2일로 교사합숙 프로그램이 라즈기르에서 있었다. 수학 여행지를 답사하고, 하반기 주요 학교일정을 논의하고, 팀별로 계획을 세웠다.

④ 장기결석 방지를 위한 학부모회의

8월 6일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장기 결석학생 75명을 대상으로한 학부모 회의가 열렸다. 이 모임은 여름방학 이후 장기 결석하고 있는 7개 마을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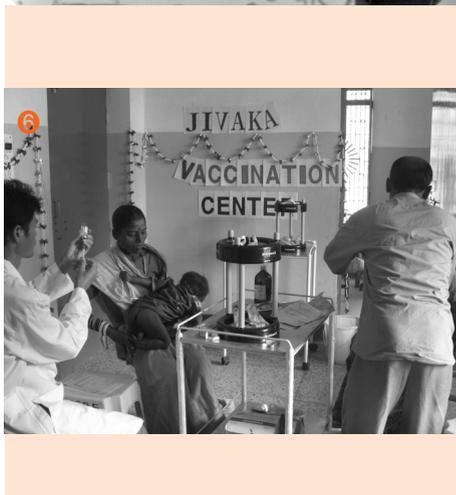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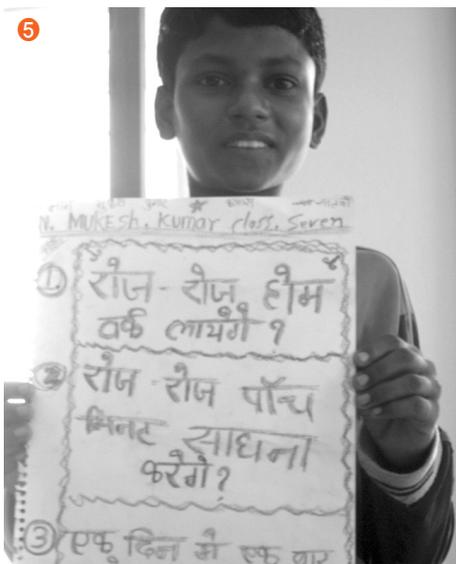


5 수자타아카데미상급생 싯다르타하우스에서 숙박수련
 8월 7일과 8일 1박2일로 수자타아카데미 남학생 7,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싯다르타 하우스에서 교사 숙박수련을 개최했다. 이 수련은 교사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개인과 유치원별로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 자리였다.

II. 지바카병원

6 아이들에게 정기 예방접종

매주 목요일 아침, 각 마을 엄마들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한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는다. 동계스와리내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취약한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예방접종이 올해로 4년째다. 두 달간 총 215명의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이 실시되었고, 아이에게 꼭 맞는 옷도 하나씩 지원했다.



해외소식



①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3개 마을 답사

지난 8월 18일 2011년 학교 건축을 위해 라타나끼리의 언동미어 (Andoung Meas) 지역의 3개 마을을 답사하였다. 라타나끼리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 이번 답사지역은 모두 학교가 없고 외부지원이 거의 없는 산악지방이다. JTS는 마을을 답사하고 학교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JTS의 자재지원과 주민들의 학교부지 증여와 건축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원하는데 합의가 되면 2011년 1월부터는 학교건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② 인도네시아, 루북빠송(군)에서 주택복구사업 시작

JTS는 지난 7월 서부 수마트라의 아감(도) 루북빠송(군)에 인도네시아 JTS 사무소를 열고, 루북빠송의 지진피해지역 5개 마을에 부서진 50채의 주택에 대해 복구 사업을하기로 결정하고, 루북빠송 지역의 깜풍 땅아, 깜풍 피낭 지역에 주택복구를 위한 자재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해 그 책임자로 자원활동가인 Eko Nugroho가, 한국에서는 기술지원을 위해 임희성 님이 파견되었다.



③ 스리랑카, 농업지원 시작

아누다라푸라 지역 농업용수로 및 우물 건축, 농업지원사업 준비해온 JTS는, 8월부터 이 지역 야카웨와와 까누가하와웨와 2개 마을에 농업기반 시설 지원을 시작하였다.

④ 문구류 지원

6월부터 시작되는 신학기를 맞아 문구류를 지원하였다. 까나안, 알라원, 빅 바니실론 등 14개 학교 2,100여명의 학생에게 공책, 연필, 볼펜, 연습장, 크레용과 스케치북 등이 분배되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는 우비와 기초 의약품도 전달하였다.

5 아이티, 지진피해지역 학교건축 지원 시작

1월 12일 지진이 발생한 중미 아이티 공화국에 긴급구호 지원차 2월 27일 현지답사차 방문하고, 3월 15일-20일 1차 구호물품 배분-5개 피해지역 2,000가구에 식량지원(쌀 45톤, 강낭콩 4.5톤, 식용유 7,570ℓ)- 했던 JTS는, 학교건축을 통한 복구사업으로 전환하여 최대 피해지역인 레호간 지역에 5개 학교 건축을 진행한다. 8월부터 현지에서 활동중인 미국 NGO HODR에서 인력구성 및 조직, 기술지원 등을 맡고 JTS는 자재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소식



① 코오롱 인더스트리, JTS와 협약식 가져

2010년 6월 29일,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JTS가 협약식을 가졌다. 코오롱에서는 매년 5억 상당의 재고 물품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JTS로 기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협약식에는 JTS 홍보대사인 한지민씨와 코오롱의 백덕현 대표 이사님을 비롯해 JTS 김애경국장, 사회공헌팀원들, 코오롱 마케팅팀의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코오롱은 JTS와의 이번 인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활동을 증진시킬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JTS와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② <행복이 가득한 집>이 주최한 바자회 수익금 60,038,500원 전달식 가져

지난 6월 29일에는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이 주최한 행복나눔 바자회, 그 수익금 60,038,500원의 전달식을 가졌다. 생활을 담는 그릇인 집과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전하는 고품격 생활문화지로 1987년에 창간되어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행복이 가득한 집>은 의식주 일상을 디자인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리는 행복 전파자로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복 기자님들이 온 몸 온 마음으로 함께 직접 발로 뛰며 바자회 물품을 기부 받았고 바자회 당일에도 모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였다. 수익금 전액은 굶주리는 인도 동계스와리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바자회 행사를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을 전해준 희망주머니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구인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정성이란 것이 크고 작음의 넓이와 깊고 얇음의 깊이가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매일 미용실 놀러오시는 분이 언제부턴가 거리모금을 한 동전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가끔씩 동전을 모아다 주시기도 합니다. 거리모금한 동전들을 비닐에 10원, 50원, 100원, 500원 동전을 따로 모아 은행을 가는데 은행에서 “비닐을 되 받아와서 다시 써야된다.” “그렇게 하기 싫다.” 하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가끔 보여드렸더니 어느날 예쁜 동전주머니를 여러개 만들어 오셨습니다.

보잘것 없는 물건이라는 듯 부끄럽게 내미는 손을 보며 코끝이 찡해집니다. 정성스레 한땀한땀 기운 주머니를 보면서 만드신 분의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정성스레 챙겨주고, 정겨웁게 아껴주고, 정다웁게 곁이 되어 주는 우리들, 함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



글 최희순 | JTS(함안)

❸ 북로그 컴퍼니, 2010년 상반기 매출액 일부분

10,469,770을 JTS에 기부

도네이션 소사이터티를 지향하는 북로그 컴퍼니는 지난 8월 2일, 출간된 책들의 매출액중 일부인 10,469,770을 2010년 상반기분으로 JTS에 기부하였다. 김정민대표 외 북로그컴퍼니 식구들 모두 JTS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전달식을 가졌다. 김정민대표는 북로그컴퍼니의 대표뿐 아니라 사회공헌팀 홍보위원이기도 하다. 또한, 북로그 컴퍼니 출판사 식구들은 JTS 사회공헌팀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북로그컴퍼니에서 출간되는 모든책의 수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된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10년 6월 1일 - 7월 31일

문의전화 02-587-8995

인도 및 제3세계	김원용 P0048938	박새빈 P0050689
(남경주구빈) P0050483	김유민 P0041201	박선영 P0049832
강성경 P0047833	김유빈(연후) P0048974	박성길 P0048722
강숙자 P0050253	P0048974	박성범 P0048977
강신경 P0050103	김유진 P0047705	박성수 P0048836
강은비 P0048159	김윤진 P0049723	박소홍 P0048408
강인숙 P0049407	김정규 P0050768	박소희 P0047593
강주연 P0048256	김정미 P0050281	박송희 P0048832
강하영 P0049221	김정욱 P0048561	박승기 P0049246
고려진통시품	김정용 P0004308	박승오 P0048191
S0050039	김중훈 P0049653	박승용 P0039955
고순심 P0017245	김지연 P0050503	박응매 P0049548
고재호 P0037198	김지은 P0050539	박은미 P0050363
고재희 P0044435	김지학 P0049843	박은혜 P0050196
고한정 P0049034	김지훈 P0048954	박은희 P0049439
곽미현 P0049423	김진영 P0049171	박인분 P0049925
고통한과 S0050035	김창균 P0048996	박준민 P0020254
구예오 P0005082	김창수 P0049655	박인순 P0044749
구태수 P0049173	김철중 P0029985	박정미 P0049829
권영희 P0049319	김태윤 P0048536	박정희 P0050482
권재경 P0047086	김태은 P0049613	박종원 P0049646
권재현 P0049022	김학미 P0042296	박주연 P0049269
권현주 P0049031	김현아 P0048940	박주영 P0030751
권혜주 P0048137	김현영 P0049036	박치옥 P0048672
가재관 P0048562	김현주 P0030810	박채화 P0050011
길효진 P0048805	김현주 P0048725	박태관 P0043945
김경희 P0049039	김현희 P0042583	박희영 P0049659
김관용 P0006225	김형주 P0029387	박혜영 P0049305
김기찬(파업연대(非인민))	김혜원 P0048176	박효민 P0049556
P0048936	김희선 P0049434	박희숙 P0049322
김기환 P0049041	김희선 P0050838	박희영 P0049654
김누리 P0049082	김희숙 P0046516	박명숙 P0050481
김대경 P0048777	나유경 P0049045	배영숙 P0050515
김도경 P0048961	노경은 P0049928	배종말 P0047823
김동규 P0049837	노선미 P0043660	배현근 P0049621
김동완 P0048512	노혜원 P0048755	배남순 P0048554
김동은 P0048254	도달선 P0050326	백서운 P0048730
김만균 P0022495	류미정 P0048721	박지희 P0048830
김미란 P0050362	류수현 P0019122	박재은 P0050530
김미정 P0049042	류인정 P0048652	변선경 P0048981
김미정 P0050198	류한걸 P0049571	변영후 P0048743
김민기 P0049028	류현주 P0044031	봉정애 P0048079
김법창 P0050239	리정영 P0048976	부처님사별방원 P0050197
김병무 P0048411	마수연 P0048998	상상전주(S0049947
김보배 P0049168	명영천 P0049726	상훈스님(이화자) P0049551
김상희 P0049402	문영숙 P0047510	서민자 P0048507
김선향 P0049425	문정선 P0048348	서재균 P0047629
김선혜 P0050485	문지윤 P0049204	서정식 P0050657
김성구 P0050252	민경덕 P0047822	서정화 P0048970
김성이 P0048958	민경후 P0003233	서현만 P0045141
김성철 P0050049	민준기 P0049314	서현숙 P0049574
김성연 P0049432	민지원 P0028509	신희숙 P0049926
김순자 P0048101	박경림 P0049442	성시홍 P0049833
김순주 P0048959	박광신 P0049388	성희스님 P0049438
김애리 P0050371	박도윤 P0050550	소민숙 P0046392
김연주 P0047671	박미정 P0049043	송경희 P0049175
김영주 P0048403	박영근 P0049929	송민재 P0048658
김영태 P0049431	박병만 P0048144	송부영 P0049312
김영현 P0048988	박보경 P0050283	

송정자 P0049930	이소영 P0049309	정병만 P0048504
송혜란 P0049441	이소현 P0046919	정순이 P0018856
신다음 P0047326	이수인 P0050125	정승아 P0048837
신미경 P0048934	이승운 P0049836	정승희 P0031205
신성애 P0044231	이승재 P0038561	정시령 P0048787
신영림 P0048825	이승지 P0049180	정아리 P0048828
신용일 P0049019	이상순 P0049927	정영덕 P0034951
신은경 P0019917	이엘씨(에이한국(유) S0050029	정애민 P0048505
신재정 P0049842	S0050029	정운정 P0049660
신태정 P0041215	이여민 P0048835	정유경 P0049306
신혜숙 P0048829	이영선 P0050302	정유희 P0050317
심수연 P0049652	이영화 P0049310	정재영 P0049177
심홍섭 P0015332	이예진 P0048737	정지숙 P0045990
안경희 P0050323	이유희 P0048511	정진경 P0048791
안양규 P0049397	이윤이 P0050151	정화영 P0049313
안정희 P0048407	이은숙 P0035371	정항숙 P0048990
안호진 P0050373	이은화 P0049016	정혜경 P0030882
양미영 P0049393	이은희 P0050336	정혜경 P0048174
양재교3-4 P0049610	이재현 P0048839	정화자 P0045072
양재상 P0030537	이정희 P0048728	조수현 P0049657
연재원 P0049178	이종익 P0001961	조영신 P0050245
오성기 P0048720	이주연 P0049559	조은숙(아트앤리이프 S0050033
오지은 P0050301	이지근 P0049209	조은영 P0039287
오한순 P0046570	이지연 P0049624	조진국 P0048797
우경애 P0048754	이지연 P0050254	조한선 P0034994
우암 P0048178	이지훈 P0045150	주서미엔투스 P0050032
우연스님 P0048405	이진기 P0002538	주서물문화사 P0049506
유별나 P0049081	이태은 P0029475	주연극발전 S0050987
유수정 P0048788	이혜선 P0048979	주인연 디자인웍스 S0050030
유영미 P0049459	이현주 P0050282	주자음과모음 P0049508
유옥재 P0049021	이현진 P0049230	주케이피미디어 P0050037
유지수 P0049371	이혜란 P0048827	주크레이디자인 S0050036
유재규 P0048513	이혜선(도연스님) P0048753	주한샘 S0050031
유호순 P0049023	이화희 P0048957	지상숙 P0049460
유호연 P0048259	이희애 P0048255	지준영 P0048171
유희정 P0039639	이후종 P0012936	지혜를 P0048731
윤기현 P0049316	이훈중 P0012936	진경미 P0048933
윤부근 P0049564	이훈정 P0036948	채연희 P0045317
윤선임 P0042089	이희성 P0048354	최기호 P0050192
이강훈 P0049282	임근영가 P0048043	최남희 P0048359
이경아 P0050379	임선영 P0014431	최미정 P0048969
이경자 P0050488	임수현 P0048826	최민정 P0048506
이규현 P0050514	임준선 P0039991	최보라 P0048980
이도 S0050034	장민준 P0048387	최옥선 P0048808
이래미 P0050186	장숙향 P0012443	최윤정 P0049830
이명자 P0048399	장유섭 P0015006	최은미 P0048840
이명지 P0048729	장유세 P0049029	최은실 P0048973
이미라 P0049090	장규 P0050541	최진성 P0049254
이미란 P0048109	장재혁 P0048724	최재웅 P0048290
이민술 P0050078	장혜림 P0049315	최정윤 P0048831
이상민 P0050549	장화연 P0049555	최정일 P0046607
이상욱 P0049085	장희진 P0048937	최지영 P0048664
이서연 P0046703	전상남 P0048253	
이선미 P0050693	전성아 P0049272	
이선옥 P0016728	전주연 P0049558	
이선희 P0048986	정강철 P0048492	
이선희 P0049083	정경숙 P0049620	
이선희 P0049170	정계욱 P0049179	
이성훈 P0050318	정국필 P0045235	
이성희 P0048200	정남순 P0048503	



최지원	P0050187	권소윤	P0003291	김정현	P0047700
최태훈	P0049236	권혜경	P0048003	김종숙	P0050070
최현숙	P0039841	권혜주	P0048137	김종훈	P0049653
최현정	P0049924	기재관	P0048562	김종미	P0006209
최희숙	P0045727	김경미	P0049437	김지은	P0050539
클러란스코리아유한		김경희	P0048726	김지학	P0049843
	S0050028	김경희	P0049039	김지혜	P0010207
페라기모코리아(주)		김경희	P0049166	김진금	P0049923
	S0050027	김경희	P0049831	김태근	P0048538
풍정인	P0048350	김기연	P0048967	김현아	P0048940
하윤아	P0048654	김길훈	P0048644	김혜원	P0048176
하은정	P0050694	김누리	P0049082	김화자	P0048148
하창렬	P0049025	김경미	P0049837	김희섭	P0049169
하효남	P0050547	김동금	P0043573	김희동	P0046755
현대길	P0048935	김동우	P0048563	김희선	P0049434
한명숙	P0045909	김동은	P0048254	김희숙	P0046516
한미애	P0050537	김만국	P0022495	남영자	P0048141
한석현	P0046239	김명순	P0046792	남이숙자	P0038370
한선주	P0049307	김명옥	P0048066	노혜원	P0048755
한선진	P0049311	김민라	P0050362	노영주	P0050747
한성덕	P0028776	김미미	P0049038	류미정	P0048721
한재우	P0032089	김미숙	P0048107	류인정	P0048652
함선녀	P0048666	김미자	P0035899	문영숙	P0047510
함수정	P0049365	김미정	P0049042	문영숙	P0047041
허강원	P0049323	김민규	P0050288	문정선	P0048348
허성호	P0049244	김민재	P0048318	민범식	P0050500
허영숙	P0047851	김범창	P0050239	민지원	P0028509
허은진	P0050017	김범우	P0048411	박경희	P0022921
허정원	P0048632	김병철	P0049165	박근호	P0042341
허종혁	P0042489	김보미	P0050327	박근선	P0050529
허진학	P0045482	김삼건	P0048560	박기연	P0017684
홍명희	P0046337	김상희	P0049402	박덕범	P0049321
홍민지	P0027817	김서원	P0048771	박동호	P0021557
홍수정	P0048661	김선경	P0045253	박영숙	P0050605
홍연정	P0049433	김선향	P0049425	박영희	P0005372
홍은주	P0048982	김선혜	P0050485	박미숙	P0049569
화수분	P0049218	김성구	P0050252	박미자	P0046748
JIN XLIAN	P0050554	김성일	P0048508	박미혜	P0049015
oxana garden		김숙영	P0049348	박사영	P0048978
	S0050038	김순아	P0047194	박성수	P0048836
		김순자	P0048101	박소홍	P0048408
		김산규	P0045391	박소희	P0047593
		김연숙	P0049838	박수현	P0011322
		김연주	P0047671	박술기	P0049246
		김옥희	P0050609	박순오	P0048191
		김인숙	P0049407	박원근	P0026513
		김익식	P0037684	박원애	P0049548
		김재원	P0048180	박유민(연후)	P0050363
		강하영	P0049221		P0048974
		강현남	P0048566	김윤정	P0050247
		강현자	P0049549	김윤진	P0049723
		강호태	P0048280	김은숙	P0044361
		공순식	P0017245	김은자	P0049628
		곽혜경	P0022859	김은정	P0050068
		곽미현	P0049423	김민숙	P0029731
		광명교육회망네트웍		김정미	P0050281
			P0050839	김정석	P0048963
		구태수	P0049173	김정애	P0003311
		권기영	P0047023	김정윤	P0026032

북한어린이돕기

박하영	P0049659	유은정	P0049440	임공임	P0047814
박현희	P0050081	유정희	P0042661	임수정	P0049557
박혜현	P0049176	유지수	P0049371	임유신	P0039991
배원준	P0013809	유호순	P0049023	임필숙	P0049615
배운선	P0013810	유희정	P0039639	장금자	P0012959
백남순	P0048554	윤경희	P0039166	장미애	P0019515
백서윤	P0048730	윤부근	P0049564	장보람	P0050542
변영후	P0048743	윤여영	P0007242	장숙향	P0012443
변은경	P0048834	윤옥근	P0048327	장완수	P0015162
변호영	P0040353	윤은주	P0048404	장유세	P0049029
사미자	P0046709	윤주원	P0049308	장미규	P0050541
상훈스님(이화자)		이강훈	P0049282	장택균	P0049150
	P0049551	이경자	P0050488	장화연	P0049555
서보옥	P0050243	이규현	P0050514	장희진	P0048937
서성동	P0048741	이금봉	P0010547		재간부신교회
서재균	P0047629	이나연	P0024357		P0049563
서정곤	P0049032	이래미	P0050186	전상남	P0048253
서정아	P0048161	이랑	P0049619	전외자	P0001995
서정진	P0048983	이명자	P0048399	전주연	P0049558
성시홍	P0049833	이미경	P0044062	전춘우	P0048565
성화스님	P0049438	이미라	P0049090	정강철	P0048492
송경의	P0049175	이민선	P0048386	정계옥	P0049179
송미경	P0039378	이민술	P0050078	정선민	P0049040
송부영	P0049312	이석매	P0027972	정수영	P0049827
송상옥	P0050495	이선형	P0049617	정수정	P0049825
송영화	P0002072	이선희	P0027733	정승아	P0048837
송정순	P0048663	이성민	P0042246	정영미	P0034951
송정자	P0049930	이성유	P0045655	정유희	P0050317
송정현	P0049020	이성훈	P0050318	정은거	P0049395
송호림	P0050548	이성희	P0048200	정점택	P0048655
송하준	P0024809	이소현	P0046919	정지윤	P0015262
신상도	P0050279	이수선	P0048824	정진경	P0048791
신순규	P0049679	이수정	P0048838	정진욱	P0022803
신은경	P0019917	이수미	P0048989	정필명	P0009154
신태정	P0041215	이순영	P0016968	정향숙	P0048990
신혜숙	P0048829	이순재	P0038561	정혜경	P0048174
심수연	P0049652	이여민	P0048835	조금연	P0010319
심환택	P0047780	이연수	P0048987	조영신	P0050245
심화영	P0049419	이영실	P0038033	조은영	P0039287
심홍섭	P0015332	이영화	P0049310	조희정	P0039380
안경희	P0050323	이예진	P0048737	지상숙	P0049460
안민	P0049377	이원경	P0046907	지준영	P0048171
안빈	P0049379	이정기	P0045218	진영희	P0049676
안정희	P0048407	이정민	P0004210	진화화	P0049424
안태주	P0046971	이정선	P0003357	진화영	P0014273
안호주	P0048039	이정자	P0048018	채연희	P0045317
안호호	P0013140	이정화	P0048727	최경주	P0049320
양미영	P0049393	이준배	P0049086	최기호	P0050192
양승민	P0049088	이진기	P0002538	최남희	P0048359
염경애	P0030657	이진선	P0050540	최미정	P0048969
오성기	P0048720	이태욱	P0046297	최수영	P0045904
오연옥	P0031803	이현수	P0041494	최숙희	P0046153
오윤숙	P0032530	이현불	P0038621	최옥매	P0048392
오인숙	P0023840	이현진	P0049230	최재웅	P0048290
오재정	P0049553	이혜란	P0048827	최정운	P0048831
유연스님	P0048405	이혜령	P0017319	최지용	P0048664
유승철	P0050183	이희순	P0048278	최지원	P0050187
유영미	P0030125	이훈정	P0036948	최찬원	P0022806
유영미	P0049459	이희성	P0048354	최창부	P0046677
유옥재	P0049021	임공영가	P0048043	최태훈	P0049236

최현숙	P0039841	박슬기	P0049246	김민경	P0048523
최희숙	P0045727	박용애	P0049548	김병무	P0048411
추경호	P0049828	박은희	P0049439	김병철	P0049165
태인순	P0049073	박지은	P0050328	김선향	P0049425
표미숙	P0044072	박진우	P0050381	김성아	P0048958
하윤아	P0048654	박재화	P0050011	김소연	P0049432
한명숙	P0045909	변지원	P0049443	김순자	P0048101
한미애	P0050537	변호영	P0040353	김영민	P0050236
한선진	P0049311	서승원	P0048984	김영숙	P0049084
한성덕	P0028776	손양원	P0038493	김예진	P0048964
한성미	P0033641	송수령	P0037662	김원용	P0048938
한재우	P0032089	심수연	P0049652	김유호	P0050280
한현숙	P0050369	심현택	P0047780	김은지	P0050646
함선녀	P0048666	유호순	P0049023	김정미	P0050281
함수정	P0049365	윤옥근	P0048327	김지학	P0049843
함승철	P0048182	이규현	P0050514	김현아	P0048940
허유정	P0048320	이라미	P0050186	김현정	P0049089
허진학	P0045482	이명자	P0048399	김현주	P0048725
홍수정	P0048661	이민솔	P0050078	김희숙	P0046516
황범상	P0049087	이성훈	P0050318	노경은	P0049928
황희정	P0027989	이소현	P0046919	노성남	P0022359

북한재건

김달윤	P0048719	이후종	P0012936	류인정	P0048652
김복란	P0049532	이준정	P0036948	문장선	P0048348
김재물	P0048718	임곤영가	P0048043	문지윤	P0049204
박용애	P0049548	장희연	P0049555	박규화	P0029986
변호영	P0040353	정강철	P0048492	박보경	P0050283
심현택	P0047780	정계욱	P0049179	박양집	P0049476
정진구	P0049562	정영덕	P0034951	박영미	P0048786
정화옥	P0007529	정혜경	P0048174	박용애	P0049548
최희숙	P0045727	조승욱	P0049167	박은희	P0049439
		조영신	P0050245	박주현	P0026193
		조은영	P0039287	박지현	P0049018
		조현선	P0034994	박재화	P0050011
		최정현	P0050377	배동진	P0049835
		최태훈	P0049236	변호영	P0040353
		최현정	P0049924	서승환	P0048985
		최희숙	P0045727	손민정	P0048733
		한명숙	P0045909	손성호	P0046121
		함수정	P0049365	신영선	P0039369

결핵퇴치

강하영	P0049221	김진희	P0022292	양승민	P0049088
고순심	P0017245	강채원	P0048180	오재정	P0049553
권오순	P0009961	강철구	P0048956	원미연	P0049227
권해주	P0048137	경희김재승한의원		유별나	P0049081
김누리	P0049082		S0050046	유연옥	P0030125
김도은	P0048960	고순심	P0017245	유호순	P0049023
김미란	P0050362	권오순	P0009961	윤옥근	P0048327
김미숙	P0041340	권형희	P0049214	윤경애	P0050021
김병무	P0048411	권해주	P0048137	이경자	P0050488
김선향	P0049425	기재관	P0048562	이규현	P0050514
김성아	P0048958	김경희	P0049831	이라미	P0050186
김소연	P0049432	김누리	P0049082	이명자	P0048399
김순자	P0048101	김덕진	P0046183	이민솔	P0050078
김용환	P0050077	김영희	P0049840	이민숙	P0050330
김원용	P0048938	김미미	P0049038	이선희	P0048986
김재은	P0048723	김미향	P0047627	이성훈	P0050318
김지학	P0049843				
김현아	P0048940				
김효정	P0048251				
노경은	P0049928				
류수현	P0019122				
문장선	P0048348				
박래무	P0037428				
박수은	P0049164				

인도모자보건

김진희	P0022292	양승민	P0049088
강채원	P0048180	오재정	P0049553
강철구	P0048956	원미연	P0049227
경희김재승한의원		유별나	P0049081
	S0050046	유연옥	P0030125
고순심	P0017245	유호순	P0049023
권오순	P0009961	윤옥근	P0048327
권형희	P0049214	윤경애	P0050021
권해주	P0048137	이경자	P0050488
기재관	P0048562	이규현	P0050514
김경희	P0049831	이라미	P0050186
김누리	P0049082	이명자	P0048399
김덕진	P0046183	이민솔	P0050078
김영희	P0049840	이민숙	P0050330
김미미	P0049038	이선희	P0048986
김미향	P0047627	이성훈	P0050318

이소현	P0046919
이수정	P0048838
이어린	P0048835
이은희	P0047420
이재현	P0048839
이지혜	P0048823
이진화	P0050329
이후종	P0012936
임곤영가	P0048043
장광철	P0046790
장미란	P0033740
장희진	P0048937
정계욱	P0049179
정수진	P0004102
정아리	P0048828
정영덕	P0034951
정현택	P0048655
정혜경	P0048174
제갈연정	P0048962
조영신	P0050245
조은영	P0039287
조현선	P0034994
진경미	P0048933
최보라	P0048980
최수화	P0049181
최태훈	P0049236
최현정	P0049924
하경애(하유정)	P0026396
혜동	P0049658
황범상	P0049087
황희정	P0027989

특별후원금

2010년 6월 1일 - 2010년 7월 31일

인도 및 제3세계	유희정 50,000원	임남환 100,000원
(주)지노이드 1,000,000원	은현 60,000원	장원로터리클럽
621차 개장모임 37,000원	이도 1,500,000원	5,940,000원
강상영 100,000원	이봉순영가 100,000원	캄보디아 우물
강윤진 371,550원	이상민 100,000원	신연화 1,000,000원
강은숙 200,000원	이선옥 400,000원	이지근 1,000,000원
강은아 20,000원	이숙자 10,000원	
고려진통식품 480,000원	이영씨에이한국(유)	북한어린이 돕기
고재호 104,790원	832,000원	강윤규 22,700원
고지형 150,000원	이영디알티센터(주)	강현자 1,000,000원
공원관 1,000,000원	2,600,000원	광명교육회망네트워크
교동함과 6,000,000원	이영경 60,000원	100,000원
김미경 10,000원	이윤이 10,000원	권소윤 30,000원
김미정 100,000원	이태권 500,000원	권순자 20,000원
김상완 300,000원	이태은,이광현 28,970원	권학경 10,000원
김선향 35,000원	이혜희 100,000원	김광선 300,000원
김성준이숙영김지연조동원	임남환 300,000원	김미라 1,150,730원
태연스님 1,500,000원	임선영 600,000원	김보미 20,000원
김유진 200,000원	잔생아 20,000원	김선향 10,000원
김은수 10,000원	장순이 93,200원	김성남 100,000원
김이숙 300,000원	조명옥 230,000원	김성수 50,000원
김재섭 100,000원	주서미엔투스 400,000원	김순아 30,000원
김창균 300,000원	주서울문화사 21,031,037원	김승현 80,000원
김창식 10,000원	주연극발전 3,000,000원	김영범 25,000원
김태은 600,000원	주인엔 디자인웍스	김옥희 200,000원
김학미 1,000,000원	500,000원	김용환 50,000원
김형주 120,000원	주저음과음음 1,600,000원	김원실 100,000원
김희선 10,000원	주케이피원포터스	김인숙 100,000원
개장모임 158,000원	560,000원	김점선 필순잔치
노희경 7,672,000원	주크레아디자인 420,000원	10,000,000원
마산법당 800,000원	주한샘 350,000원	김정란 100,000원
명영전 1,000,000원	클라리스코리아유한	김정애 60,000원
박덕연영가극락왕생	621,000원	김정숙 100,000원
3,000,000원	페라가모코리아(주)	김종수 1,000,000원
박도윤 10,000원	500,000원	김종미 720,000원
박인수 백은하결혼축하	하은이 20,000원	김현정 50,000원
1,000,000원	허효남 10,000원	김홍임 145,200원
박영옥 100,000원	한석현 10,000원	김희동 50,000원
박재윤 1,412,000원	해피빈 2,729,100원	나명희 200,000원
박주연 30,000원	허종혁 1,000,000원	남이숙자 365,000원
박철균 41,410원	현승완 50,000원	두영주 20,000원
백재은 60,000원	현승완 필리핀 50,000원	무비 300,000원
북로그컴퍼니 4,516,460원	홍경미 36,750원	박경희 10,000원
삼삼전자(주)	홍영정 20,000원	박근선 200,200원
10,000,000원	JIN XUAN 330,000원	박덕범 400,000원
손양완 100,000원	oxana garden 369,000원	박동호 500,000원
신한카드 206,061원	미국JTS 17,347 US\$	박명희 77,620원
심태숙 750,000원	GE 4,500 US\$	박미자 10,000원
아트앤라이프 240,000원	인도 식수사업	박민수 백은하결혼축하
안상현 150,000원	이승운 300,000원	1,000,000원
양재고3-4 275,000원	장홍수 100,000원	박영기 25,480원
엑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박은희 2,000,000원
35,500원	필리핀 어린이 지원	박정선 10,000원
용인동천동불교대학	김선향 15,000원	박지현 10,000,000원
128,000원	김성수 50,000원	발로도 초록빛바다 어린이집
울산법당 1,000,000원	김정란 100,000원	510,900원
월영초등학교부도킵등판매	박승복 100,000원	
100,000원	이정민 100,000원	
유효순 350,000원		

문의전화 02-587-8995

배원준 30,000원	조금연 100,000원	최낙용 100,000원
배윤선 30,000원	조희정 10,000원	최순이 50,000원
백혜영 200,000원	진영희 10,000원	최연희 200,000원
백화순 60,000원	차상훈 1,000,000원	최재경 20,000원
서애연 30,000원	최경주 300,000원	추현재 500,000원
서창임 50,000원	최숙희 10,000원	하보경 60,000원
송미경 10,000원	최순호 1,000,000원	하은이 30,000원
송영화 50,000원	최우매 24,000원	하은이 30,000원
송호림 100,000원	최운정 50,000원	한성미 10,000원
송화준 50,000원	최찬일 200,000원	한영대 백중영가전도
수저령영가 왕생극락원	표미숙 10,000원	300,000원
300,000원	하은이 110,000원	허용진 100,000원
신대식 50,000원	한성미 50,000원	황준성 20,000원
신순규 10,000원	홍도연 328,000원	황준성 20,000원
신승우 50,000원	홍사숙 10,000원	
신윤정 20,000원	미동부 662차 깨달음의장	165 US\$
안미리 100,000원	제민스김(광정토)	200 US\$
안호주 30,000원	김나영(광정토)	200 US\$
엄경애 10,000원	김도연(광정토)	200 US\$
연승모 50,000원	이지은(광정토)	200 US\$
오병홍영가 왕생극락원	200,000원	
오인숙 10,000원	김나영(광정토)	200 US\$
오한순 1,150,000원	김도연(광정토)	200 US\$
유재한 1,000,000원	이지은(광정토)	200 US\$
유정희 100,000원		
유희정 30,000원	북한 재건	
윤여영 100,000원	강현근 50,000원	
이금봉 10,000원	김복란 30,000원	
이미경 30,000원	김종국 112,000원	
이봉순영가 왕생극락원	김효미 95,000원	
100,000원	노희경작가인세 591,900원	
이부연 1,000,000원	문원규 300,000원	
이소현 10,000원	문일근 300,000원	
이승현 500,000원	배소현 30,000원	
이우희 30,270원	서동찬 49,550원	
이원경 2,000,000원	서애경 1,000,000원	
이정선 210,000원	서창임 50,000원	
이정자 10,000원	성지은 30,000원	
이정표군일대기념	송민형 100,000원	
100,000원	심경택영가극락왕생	
이재상 10,000원	30,000원	
이종희 20,000원	심호철 1,000,000원	
이태욱 200,000원	이봉순영가 왕생극락원	
이혁재 120,000원	100,000원	
이현숙 50,000원	이순정 50,000원	
임공임 10,000원	이승화 50,000원	
임남환 100,000원	이위선 200,000원	
임성희 200,000원	임양호 100,000원	
장미애 50,000원	정우현 300,000원	
장시종 50,000원	정진구 130,000원	
장원수 100,000원	정희옥 100,000원	
장택균 10,000원	조춘자 20,000원	
전경숙 10,000원	최광림 500,000원	
전외자 10,000원	1,000,000원	
정은귀 64,700원	조미희 백중영가전도	
정지운 100,000원	100,000원	
정진욱 50,000원	조유제 100,000원	
제순희 10,000원	지현숙 30,000원	

결핵 퇴치

김선향 10,000원
김효정 5,000원
박지은 31,070원
안광민 20,000원
이봉순영가 100,000원
장선이 150,000원
황용규영가왕생극락원 60,000원

인도 모자보건

경희김재송한의원

50,000원
김선향 25,000원
박은현 300,000원
배동진 500,000원
이민숙 10,000원
이봉순영가 왕생극락원 100,000원
정수진 30,000원
황용규영가왕생극락원 60,000원

아이티지진참사

강상영 20,000원
김덕정 120,000원
김선향 20,000원
김성수 55,000원
김성초 100,000원
김영호 60,000원
김효주 30,000원
박명준 1,500원
성지향 100,000원
유영애 200,000원
이숙자 10,000원
임송화 100,000원
전재현 3,000원
정승아 50,000원
진명숙 30,000원

나눔저금통 현황

2010년 06월 01일 ~ 2010년 07월 31일

➔ 대구

구미교아름향곡리한남체인슈퍼41개 344,692 (강춘석2개 11,125 김규만 23,540 김금숙 18,330 남차순 101,070 무명21개 80,736 송미린2개 10,291 안삼숙 3,200 유영진 18,400 유윤준 19,270 유홍이 16,300 이동훈 3,020 이원수 3,270 이종순 14,710 이지연 2,980 정연국 8,570 최진성 5,950 최현수 3,930 김영하 24,850 김용 2,910 김정희 84,000 김훈 11,660 무명 17,750 무명 27,250 무명 31,020 무명 69,080 무명4개 83,940 문성해 25,140 박수정 18,210 박준영,민아 29,930 박진욱 22,990 성암산식당 1,760 송민규 24,890 **왜관한울림어린이집44개** 222,410 (강민규 6,790 고훈우 4,270 권순호 2,200 권향옥 8,360 김기룡 1,370 김동건 3,500 김동훈 6,340 김민규 4,110 김민우 1,250 김보민 2,860 김설훈 1,570 김성경 3,140 김세민 8,210 김영영 9,220 김은서 9,380 김재준 3,470 문정연 7,340 배서영 6,310 배승민 6,890 배은혜 1,190 복태원 4,490 서보혜 3,940 서유진 670 송순환 4,760 송효근 6,410 신기찬 2,900 안나현 5,800 이가현 1,880 이다현 4,480 이민숙 23,540 이소윤 3,320 이승연 2,970 이승주 3,140 이승진 2,640 이승찬 1,970 이정은 5,050 이채민 5,560 장연주 18,120 정승진 2,380 조수진 2,930 조용현 6,000 조운태 4,360 한주혁 6,380 홍지민 950) 윤경화2개 100,610 윤성현2개 98,800 윤여영 18,360 윤진욱 65,400 이미나 31,340 이재민 24,590 임은숙2개 19,150 장선숙 37,520 전양순 37,210 최봉관 13,070 **학남중학교731개** 2,189,610 (2009년1학년7만 34,510 2-5반저금통잃어버린사람들 20,000 2-7반 16,350 강대용 1,480 강동현 1,260 강민지 1,610 강성현 450 강장수 4,540 강지영 6,450 강창현 890 강태욱 600 광민정 4,300 광준혁 2,220 구지영 1,420 권나영 8,510 권노현 5,350 권두지 2,820 권명현 3,580 권민욱 730 권민혁 25,480 권용범 670 권은진 1,030 권지희 5,010 권진솔 5,140 권혁주 5,110 권혁준 2,710 권현준 5,560 금효정 2,930 금희숙 3,810 김가연 1,000 김가영 830 김기현 1,790 김기희 1,420 김건우 6,150 김경민 2,160 김국희 6,510 김규아 5,620 김기령 3,540 김기철 1,960 김나경 780 김남현 740 김다현 1,050 김도영 6,020 김도훈 1,630 김도희 270 김동규 1,940 김동영 1,440 김동윤 2,430 김두희 1,960 김리나 3,470 김명홍 1,100 김무현 2,320 김문승 3,370 김민주 1,790 김미정 550 김미정 3,490 김민서 1,720 김민섭 2,530 김민주 1,670 김민주 6,050 김민지 5,590 김민혜 470 김법곤260 김벌 3,250 김병욱 5,110 김병주 2,960 김병준 1,460 김보규 4,660 김상범 500 김상현 1,000 김상준 1,180 김성형,권현익,신기태 2,560 김성연 890 김서현 3,210 김서희 340 김신하 3,280 김성수 3,060 김성윤 4,150 김성은 570 김성준,장근우 3,680 김성환 930 김세연 4,090 김세현 5,650 김소원 1,070 김소정 8,950 김소희 1,750 김솔 1,280 김수민,6,660 김수민 3,570 김수민 1,950 김수빈 460 김수연 1,900 김승현 2,760 김승현 3,050 김승희 5,040 김시우 1,430 김시웅 1,220 김연우 2,770 김영민 770 김영현 1,020 김영현3,000 김예민 810 김예영 3,280 김예지 3,260 김예진 2,080 김용순 1,100 김원우 400 김원홍 3,000 김유미 1,620 김유정 1,960 김유진 1,800 김원우 2,000 김유정 1,780 김은영 710 김은지 2,610 김진 210 김은총 5,700 김재희 700 김재승 4,500 김재우 1,200 김재준 8,240 김정민 4,510 김정성 850 김정옥 2,670 김정현 1,310 김정은 3,540 김주현 4,380 김준기 530 김준영 1,570 김지영 1,550 김지영 4,260 김지윤3,300 김지현 3,490 김지형 390 김지형 10,300 김지혜 1,260 김지혜 5,200 김지호 1,010 김지훈 7,230 김진현 680 김진호 440 김진호 2,190 김철규 1,670 김창현 2,350 김태나9,060 김태호 2,710 김태홍 300 김태환 6,570 김태환 5,430 김푸름 2,950 김하경 1,650 김학현 1,000 김해영 2,990 김현성 1,890 김현아 540 김현영 480 김현영 640 김현주,320 김현지 2,000 김현지 2,600 김현지 11,730 김형민 7,430 김형원 5,680 김형준1,080 김혜리 9,370 김혜은 1,120 김효진 5,860 남경현 900 남수지

문의전화 02-587-8995

300 남예진 650 노경진 1,310 노동백 5,860 노우영 1,370 노주민 6,560 도경옥 1,000 도연주 6,200 도형택2,850 도희연 1,600 동헌,영민,지원,수경,희상,승형,예은,성상,정옥 22,500 류재은 820 류지선 10,430 류지형 1,400 류지훈 590 류창옥 4,790 맹효정 1,000 무명71개 267,670 문도원 1,000 문주혜 1,900 문효은 2,630 미래 1,710 민세영 910민수민 3,660 박강식 560 박건후 2,550 박경실 900 박경재 2,390 박광로 450 박교일 890 박근혁 14,230 박다영1,650 박다운 3,490 박단별 1,100 박미정 4,880 박미정 3,590 박민정 4,800 박민정 1,260 박민혜 4,860 박배근 1,040 박병준 860 박보현 2,000 박상현 2,880 박서형 19,650 박성민 1,640 박성환 1,050 박소민 1,620 박소영 2,460 박소희 1,700 박수빈 950 박수연 3,960 박수용 1,460 박수은 1,740 박수정 1,870 박승호 1,300 박아람 7,610 박알인 2,350 박연지 1,020 박영웅 3,720 박영웅 14,520 박예민 6,030 박예현 1,140 박용현 760 박인아 1,330 박재은 3,450 박재현 4,410 박정민 2,790 박정은 860 박정민 2,300 박정주860 박주호 4,230 박준형 3,300 박자수 2,840 박지민 930 박진경 730 박진솔 9,560 박찬우 2,840 박찬휘 6,960 박철민 2,420 박하나 6,680 박현아 1,430 박현영 1,870 박현지 3,650 박혜미 1,270 박혜연 4,290 박혜정 370 박혜정 1,950 박효진 1,480 박희원 1,470 방혜림 1,340 배기석 4,060 배수빈 1,120 배수연 470 배수재 4,720 배수진 1,460 배준원 1,320 배준현 7,270 배효능 6,450 백승철 300 백승민 700 백승민 1,280 백은경 2,350 백중훈 1,190 백지윤 2,800 백현지 1,260 백혜진 1,770 변다혜 3,020 변민선 640 박선우 5,450 사공민 1,420 상지용,유현진 5,490 서기현 460 서대호 940 서미숙 3,560 서보은 700 서예지 6,480 서유진 9,890 서유현 2,220 서재민 1,550 서주영 1,910 서지수 5,580 서진희 3,540 서희주 1,880 석영지 790 석지윤 700 석진우 1,350 성재태 2,120 성준 280 소예리 2,700 소현철 480 손기영 1,000 손병준 1000 손선정 2,790 손수민 2,060 손수민 900 손영아 1,570 손윤지 1,380 손지희 1,200 손혜영 1,800 손혜진 1,670 손형우 4,070 송다솔 900 송범민 420 송애솔 840 송영지 2,480 송재경,야마 84,060 송정근 940 신경재 2,310 신나라 11,810 신민서 4,810 신상민 1,430 신선우 3,800 신선희 3,190 신성현 2,240 신소미 2,300 신소영 1,280 신수민 7,410 신승희 2,880 신영성 3,860 신윤성 4,500 신은주 3,450 신은현 2,570 신정은 5,800 신지는 1,480 신지혜 490 신혜민 1,310 신호성 390 신호진 4,080 신기우 170 수비 620 안재현 950 안지영 5,500 안하민 2,030 안다원 2,860 양동현 3,050 알미림 6,660 양지은 3,000 양지훈 4,220 엄선아 4,000 연혜진 280 오남주 1,590 오성백 3,700 오유진 1,300 오희영 9,150 오피는 2,060 우승경 21,600 우혜경 4,640 유민지 1,200 유성현 2,250 유소원 2,000 유승희 3,020 유지수 3,270 유찬미 2,940 유희영 1,260 윤동준 2,150 윤서영 1,940 윤승렬 150 윤영빈,990 윤유리 2,970 윤유진 2,320 윤은희 2,750 윤종찬 1,050 윤주혜 18,340 윤지원 800 윤혜민 7,060 윤현진 340 윤현창 1,820 윤혜정 340 은지민 4,900 이가영 3,340 이기현 3,420 이기희 800 이경희 1,220 이다은 5,050 이다희 1,500 이다빈 940 이대우 4,260 이도영 5,070 이동렬 1,190 이미희 4,210 이민영 2,330 이민우 1,750 이민우 1,100 이병주 1,200 이보민 1,970 이상문 6,760 이상민 1,760 이상진 1,810 이상진 1,090 이상훈 360 이선우 3,670 이상우 550 이상은 3,070 이상재 1,300 이상현 1,740 이소윤 11,470 이소윤 3,640 이슬희 10,890 이수민 3,440 이수연 360 이수영 1,840 이수정 5,300 이수정 1,600 이수준 21,000 이승엽 4,220 이승주 1,860 이승혜 1,220 이승혜 3,880 이승훈 1,400 이신우 1,000 이연용 14,550 이연주 3,140 이영민 3,220 이예림 620 이예성 1,130 이예진 1,400 이용기 3,620 이우석 3,180 이유빈 4,870 이유정 4,200 이유진 2,930 이윤아 3,250 이윤지 1,920 이윤진 2,310 이윤정 4,240 이은지 1,380 이은혜 3,350 이재룡 1,660 이재민 3,570 이재민 330 이재성 470 이재성 6,110 이재준 1,580 이재현

950 이정근 6,340 이정석 910 이정영 620 이정은 5,450 이정현 850 이종열 4,000 이종욱 3,540 이주연 4,970 이주현 4,710 이준석 1,900 이준엽 3,300 이지오 810 이지우 1,060 이지은 1,480 이지는 1,250 이지는 1,830 이지현 850 이지현 2,830 이창현 1,670 이태일 5,650 이한민 850 이해경 5,820 이해든 820 이현우 2,520 이현정 5,280 이현정 2,120 이현지 240 이현지 1,160 이형대 5,980 이해진 1,800 이호민 200 이호정 200 이호준 1,060 이화수 5,050 이희진 2,140 이희경 650 임승원 3,330 임승환 1,380 임영훈 1,870 임익희 370 임재환 1,000 임채현 3,160 임희진 330 장민국 11,110 장민성 11,370 장승은 1,250 장연호 710 장은영 2,670 장주이 3,320 장하은 1,990 장한솔 2,440 장현선 2,800 장해진 4,710 장희정 1,530 재용 150 전민주 1,330 전민지 1,100 전범준 1,130 전현수 730 전형민 2,230 정가람 1,750 정경표 720 정남수 3,010 정남희 1,340 정다운 3,100 정동호 3,310 정달선 500 정선에 2,990 정성찬 1,690 정수민 2,400 정원경 7,050 정유경 750 정유진 1,510 정인해 5,010 정일용 1,430 정재민 1,000 정주원 400 정중혁 3,280 정지원 1,000 정찬교 440 정한석 4,310 정해웅 540 정현우 1,330 정혜원 1,580 정혜정 950 정혜화 480 정희 30 정희진 2,960 재은빈 5,100 재희정 1,710 조경민 2,760 조대철 1,000 조석민 1,900 조선경 9,320 조선민 5,900 조성원 4,670 조성태 840 조수미 2,860 조영권 1,800 조영준, 장병만 9,130 조예진 1,300 조원재 3,860 조은지 1,150 조은진 1,200 조은호 7,700 조재희 2,180 조정우 6,210 조지연 1,970 조진욱 1,350 조혜영 3,350 조혜지 2,180 주성원 2,190 주정민 1,560 지속이 550 진상민 1,950 차민호 1,000 차소현 1,580 채규영 1,790 채수아 3,930 채유진 960 채진주 1,260 최경순 3,760 최다연 1,300 최다음 880 최덕현 510 최민수 2,940 최민우 1,290 최범수, 박정연, 노민주, 박정수 1,690 최병준 2,970 최산 1,450 최석규 520 최성국 720 최성수 2,310 최수민 1,830 최수민 4,170 최수성 1,340 최승영 490 최수진 3,520 최수창 2,710 최영호 1,130 최예슬 750 최용호 2,720 최원석 1,560 최원호 5,170 최윤정 4,300 최윤지 2,200 최은아 700 최은영 4,230 최은화 760 최재혁 27,130 최준영 1,810 최지선 180 최지윤 480 최진서 1,690 최찬우 3,330 최하영 1,890 최형민 2,000 최혜란 800 최효진 2,600 최화정 5,350 탁영민 2,030 하홍민 2,320 한수진 3,100 한영지 1,610 한은우 2,560 한중현 1,860 한채영 3,420 허다는 1,230 허예림 3,460 허예진 1,180 허지성 470 허혜지 1,340 홍명주 3,100 홍시는 360 홍성윤 4,000 홍성표 5,230 황기강 6,910 황도영 1,360 황상현 2,400 황세리 2,900 황세민 1,220 황수현 3,530 황영송 1,300 황예찬 1,030 황윤정 780 황은비 8,130 황준영 1,810 황준혁 4,620 황준현 200 황지욱 520 황지는 970 황지민 6,830 황혜령 740 y,h,(3-10) 300

→ 대전

김명숙 24,000 김선아 20,960 동춘환의원 206,040 무명 36,820 무명 8,590 무명 20,020 박병익 19,620 박지민 24,100 박충현 33,490 보부상2개 57,100 성재훈 12,570 성재훈 12,780 송하준 36,170 엄경애 55,730 윤영희 21,510 이삼민 8,440 정영미 25,000 최병연 120,000 태한성 16,560 홍상선 29,130 황익신 12,750

→ 동래

구원호 29,20 구현우 14,920 김순애 13,770 김철용 60,390 김태의 23,590 동래어린이법회(진정호) 20,100 명혜빈 59,840 무명 88,860 무명 32,460 박창환 39,740 백수명 141,410 부산사직여중3학년4반 22,830 서정화 29,990 심연주 22,520 윤소영 5,070 윤영숙 28,320 이삼선 21,990 이수남 24,220 이수남 28,540 이수남 75,500 이호숙 25,600 전소익,전재이,전병현 20,250 정두백

22,340 정원철 18,550 정윤연 24,470 조장선 38,900 진숙희 24,050 최정숙 6,890 최해란 17,200 허연화 156,820 허현숙 8,990 황혜옥 25,660

→ 마산

강민승 13,910 거제고현점 9,390 거제원마트 55,670 거제홈플러스점 12,060 김건호 6,350 김경규 30,480 김귀선 7,020 김귀숙 19,250 김덕남 3,700 김삼선 26,290 김성희 22,940 김영달 9,050 **대합초등학교38개** 141,380 (강애림 840 강정환 1,140 건우 3,350 김다솔 5,940 김민석 570 김민성 14,900 김신영 2,260 김현지 4,420 무명 1,780 무명 360 무명 1,250 무명 2,960 무명 2,210 무명 1,500 무명 3,540 박민찬 9,370 박은지 12,040 박재건 3,590 서인석 2,840 서지현 1,890 성원용 1,100 오예원 10,000 오예찬 10,600 유주형 1,040 윤예찬 5,500 이수빈 2,030 이유정 3,380 이일영 7,130 이정희 200 이진우 1,560 임혁규 1,440 전지현 3 080 전현정 4,520 최윤경 4,900 핑크 830 하성호 3,300 허수경 2,760 혜진 1,260 마카오(홍콩반점-더시티세븐점 4,280 무명 34,090 무명 36,400 무명 25,511 무명 30,760 무명 1,200 무명 32,210 무명 20,330 박기범 44,830 분가-더시티세븐점 6,650 **산인어린이집36개** 240,680 (김기용 3,350 김보성 6,920 김지안 5,680 김현정 5,730 무명 3,970 무명 14,450 박소형 4,490 박재현 6,010 박채민 8,130 박해빈 4,050 성예빈 2,540 송다빈 20,230 신재원 3,650 안상우 7,440 안유민 14,770 오은우 15,300 유대훈 1,200 이경민 12,170 이권욱 8,100 이신우 5,060 이아정 5,720 이재민 5,870 이재한 6,490 임채우 6,480 임혜진 19,800 정민성 5,710 조재경 2,110 조재희 5,830 조현 2,370 조현서 2,040 조현준 10,540 하동남 2,880 하동훈 1,720 하유성 3,390 한비 2,110 홍석현 4,380 **산인초등학교44개** 288,130 (강예지 1,180 권민재 4,700 김가람 3,740 김민규 4,690 김지윤 4,370 김진 3,450 무명 4,530 무명 6,350 무명 5,170 박민기 14,190 박부 40 김290 박소원 4,310 박여원 3,200 박지민 3,140 박태우 1,310 서재원 3,010 소진 6,960 송시은 2,070 심재욱 4,200 심재원 8,970 안귀현 3,010 유선영 4,070 유지는 7100 이건구 1,210 이등걸 4,900 이동희 2,240 이여은 7,040 이자민 15,560 이지혜 13,610 이현진 2,370 재환 2,420 전주정 300 정무민 4,760 정우민 2,600 조승에 24,450 조윤제 12,130 조현기 10,770 지웅 3,150 차도영 2,760 한지성 9,860 현민 4,900 해은 8,610 홍동업 16,470 홍수만 13,710 서영자 13,800 손순연 39,950 신규철 14,790 신춘순 10,000 안미숙 6,400 연우,연호 25,160 요가사랑무명9개 144,270 원정 22,960 윤승현 27,150 윤주희(호계중학교) 13,900 이경애(불대) 17,680 이경희 12,530 이광은,이태은 16,860 이영숙 13,970 이영숙(동읍) 25,160 이영애 5,200 전명자 67,570 전찬웅 23,310 정순연 4,300 정재민 99,250 주환선 32,860 창근,영근,채린 9,740 최희선 13,300 최한지 32,030 탐원탐스진주평화점 31,960 토니모리진주중앙점 1,160 토니모리신창원점 2,790 하동정량초3 65,400 함안민수정가든 14,270

→ 서울

강미라 23,300 강태연 17,900 강한자 23,180 강현자 47,320 고재호 32,210 곡성광,김해경,곽인서 33,030 광동중2-3 8,420 구로구청아름다운건축과 90,090 권민혜 28,420 권민혜 28,700 권수영 29,930 권오삼 29,610 권유선 23,230 김강욱 13,640 김나현 9,940 김도원 19,850 김관경 43,590 김민서 20,960 김성수 31,060 김성은 46,250 김성희 25,570 김영민 24,700 김옥금 47,850 김유경 10,230 김정애 83,560 김정택 53,220 김희희 32,020 김중현 42,110 김지성(이정준) 23,370 김찬영 29,850 김택수 11,410 김학미 104,000 김향 28,250 김현영 12,760 김희정 30,750 나강운 5,040 무명 6,980 무명 28,520 무명 9,410 무명

13,570 무명 32,630 무명 30,030 무명 25,020 무명 32,080 무명 10,610 무명
 18,160 무명 20,040 무명 3,040 무명 16,760 무명 16,570 무명 20,210 무명
 26,740 무명 28,050 무명 32,760 무명 41,570 박경미 24,760 박기일 34,620 박
 동원 69,990 박동원 39,190 박세희 5,110 박소희 17,550 박주용 25,920 박지에
 34,690 서병하 25,970 서석곤 27,160 서옥희 27,890 소화중학교1-1반 33,850
 손옥순 22,120 송광사회복지시설 37,770 송영희 23,700 신도봉중학교 2,219,270
 신주 18,360 안산 33,470 양시원 51,870 양천거리모금 35,740 양현봉 32,300
 여운봉 26,250 연오 37,400 연오 82,450 오주미 16,170 왕선희 32,730 왕십리점
 탐앤탐스 80,450 용인열린교회 19,000 용인열린교회 14,780 유경숙 41,580 유경
 숙 37,250 유경숙 31,020 유은령 20,560 윤나는 20,340 윤정택 29,460 은평법
 당 157,070 이덕기 31,130 이명순 23,110 이명희 80,150 이석용 24,950 이성미
 15,400 이상심 28,600 이수자 21,950 이수자 20,340 이명희 11,840 이은영
 26,450 이준호,이윤주 29,480 이태경,나경,나윤 11,770 이한재 23,030 이향호
 41,500 이혜리,고상숙,윤민혁 9,350 장예진 40,450 장천섭 38,160 전미진,전서진
 17,690 전상욱 33,360 정인숙 17,420 정찬희 15,690 정현석 29,530 조종현
 18,120 조종현 23,080 조형 30,200 조형 28,870 중산중학교 4,426,250 중산중
 학교 214,650 자매대우신용협동조합 20,140 탐앤탐스구로디지털점 11,490 탐앤탐스
 부천위브더스데이트점 8,940 한지민,수민 16,740 행사원 10,340 허지은
 18,480 현대불교신문 80,270 홍경미 36,750 홍서현 28,110

➔ 울산

강영미 21,990 강채현 10,710 권동현 25,550 기철민 32,210 김옥희 20,230 김용
 주 8,140 김은하 25,410 김일윤 34,020 김희자 36,370 대방낙지 13,320 대호공
 업사 22,080 무명 28,390 무명 9,640 무명 5,670 무명 15,660 박보배 18,160
 박성자 27,340 방기초등학교 512,030 신한약국 13,760 용안사 16,400 용안사
 16,730 용안사 14,810 용안사 26,460 용안사 19,570 울산축협중앙 14,370 울산축
 협중앙2 4,250 월계초등학교 1,608,000 월계초등학교 260,020 이서영 4,560 이
 성례 13,670 이운성 26,210 이채영 2,550 이채영 16,310 정우혁 40,050 정정애
 8,500 정정영 29,410 정정영 28,570 조동원 7,850 최옥자 14,430 출산축협
 38,820 한양스토어(우정) 55,010 흥덕한의원 59,970

➔ 제천

(교)남기회 20,130 강성하,정은경 71,010 김상희 23,870 무명 19,910 박민주
 41,980 유동욱 25,450 이은숙(평창) 36,210 이정호(평창) 35,040 임상득 27,030
 장용재 13,150 정지은,정두영 22,690 제천법당 20,350

➔ 청주

김동윤 21,870 김동윤 33,320 김영중 77,600 김지현 17,620 김홍진 60,740 류정
 훈 38,570 문주현 8,000 박준자 36,800 본가금천점 4,500 심태숙 16,000 오순
 민 29,600 오영주 30,900 윤귀예 42,370 이수자 30,930 이수형 25,700 이윤선
 38,130 이윤선 37,800이재원 22,000 정남식 25,000 정홍진 26,000 토니모리홀
 플러스 4,710 한살림7개 246,770 해물떡볶 18,290

➔ 해운대

고창무 44,350 김동명 14,260 김선미 21,980 김연주 33,020 김효미 28,060 무
 명 72,190 무명 81,980 박웅범 17,550 박지연 19,320 박화숙 2,450 손강민,손기
 현 17,190 오수영 69,510 이경 11,600 최성훈 23,430 황우경 6,170

| 거리 모금 현황 |

2010년 06월 01일 ~ 2010년 07월 31일

거창여고2-3 30,000 경주 8,000 김천 406,300 대구 408,540
 대구이마트마일리지 29,331 대전 370,000 동래 590,774 마산
 2,331,210
 마산코오롱사우나 661,210 서울 992,810 신도봉중학교 720,690
 아름다운가게홍대점 66,260 울산 273,500 통영어린이날
 374,660
 해운대 305,222 행복이가득한집바자회 47,266,500

(사)한국JTS 기금사용결과 보고

(2010. 01.01~ 06.30)

■ 수입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후원금	1,550,656,665	정기, 특별후원금
모금활동 수입	178,883,474	캠페인 및 저금통모금 포함
물품후원	237,051,364	의류 외
사업비보조금	22,257,758	국제협력단 외
이자수입	173,211,140	연등축제 외
기타수입	2,435,350	국제협력단 외
수 입 계	2,164,495,751	

■ 지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북한 사업비	820,822,557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 식량 및 생필품지원 외
인도 사업비	231,382,040	동계스와리16개마을교육지원, 보건의료지원, 마을개발
필리핀 사업비	161,324,614	민다나오 교육지원, 원주민 농업기술센터 건축 외
캄보디아 사업비	81,757,076	라따나끼리, 프ROI빙 지역 학교건축 외
국내사업비	21,101,376	노인잔치, 애광원 장애인지원 외
해외긴급구호	82,850,561	아이티 지진 긴급구호
홍보사업비	52,208,678	소식지, 홍보비 외
관리 운영비	63,239,260	건물임차료 및 발송비 외
지 출 계	1,517,024,564	
차기이월금	647,471,187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지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셨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간급구호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